

##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학 준

-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저는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한 이후 학부 2학년 때 공공인재학부(정책학과)로 전과했습니다. 정책학 전공과목에 법학 과목 일부가 포함돼 있었고, 덕분에 저는 학부 3년 동안 기본3법과 행정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에서 약소하게나마 법학을 접해본 경험은 로스쿨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스쿨에서 배우는 법학의 깊이와 절대적인 공부량은 학부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간과했습니다. 학부 때보다 아주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대가는 학부 때보다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로스쿨 1학년 성적만을 본다면 약 중위권 정도였습니다.

2학년에 진학할 무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수업이 중단됐고 대부분의 강의가 비대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기부터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2, 3학년 동안 강의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공부패턴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에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정규강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강의를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저의 경험이 현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독자들에게 조금은 이질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험대비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들을 어느 때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에 아래에서는 제 경험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II. 전반적인 공부방법에 관하여

### 1. 순공부시간 스테디

로스쿨 3년 동안 가장 유용한 공부습관은 '순공부시간 스테디'였습니다.

위 스테디는 식사 및 개인 용무의 시간, 특히 화장실 등 자잘한 시간까지 모두 제외하고 하루의 실질적인 공부시간을 측정하여 인증하는 온라인 스테디였습니다. 1학년 겨울방학 무렵부터 시작해서 3학년까지는 방학 중 32시간(7일 기준) 내외, 학기 중에는 45시간 내외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약 50시간에서 차차 늘려 변시 직전에는 60시간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처음 스테디를 시작했을 때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과 실제 공부시간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당황하곤 했습니다. 소위 판짓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니 하루에 5-6시간 정도의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순공부시간 스테디'를 통해 절대적인 공부량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고, 다른 스테디원들의 공부시간을 보며 건전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목표 설정'의 측면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는 편이었고, 같은

범위를 공부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느 때는 30분이면 교과서 십수장을 읽기도 했지만, 특정 쟁점이나 과목에 매몰되면 교과서 1장을 읽는데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분량을 가지고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위 스테디를 하면서 공부분량이 아니라 실제 공부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편리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계획의 제 약점을 조금이나 극복하여 공부계획을 세우면서 큰 부침없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거나,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하여 공부의 효율이 낮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순공부시간을 측정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 2. 공부계획 및 공부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부를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에 서툴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계획 세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졌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을 목전에 뒀을 때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뭉툭한 계획이라도 있어야 짧은 시간 안에 민·헌·형 10여개의 실제법과 절차법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선배들은 '4321 공부법'을 추천해줬고, 이는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4321 공부법

은 변호사시험을 30일 앞두고 민사, 형사, 공법을 각 사흘, 나흘, 이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민사법, 형사법, 공법을 각 사흘간 공부하고, 다시 위 세 과목을 나흘 공부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틀, 하루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30일 동안 모든 과목을 4회독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변호사시험이 닥쳐오면 ‘버림의 미학’이 필요해집니다. 변호사시험의 시험범위는 광활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반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시간과 기억력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는 점점 무엇을 공부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4321 공부법은 각 회독이 늘어날 때마다 공부시간이 하루씩 줄어듭니다. 결국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다음에 공부할 분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저는 이를 통해 과감히 중요하지 않은 쟁점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위 버리는 쟁점들의 경우에도 다음에 다시 볼 수 없음을 체감할 수 있기에 마지막으로 보다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4321 공부법을 추천해 드렸습시다만, 저와 같이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변호사시험 직전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공부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스쿨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진학하고, 대부분의 원우들은 오랜 시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계속해온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에 주위를 둘러보면 치밀하게 공부계획을 세우고, 정말 꼼꼼하게 필기를 정리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플래너도 없고, 마땅한 단권화교재 한 권이 없다는 사실에 막연한 불안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때로는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시험 범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코 완벽히 공부할 수 없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제나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에서 지워진 내용들이 튀어나옵니다. 민사법을 공부하면 형사법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형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공법은 정말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처럼 법학은 공부 분량이 너무 많기에 계획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저 늘 어느 부분이건 과목의 어느 부분이든 공부를 하면 스스로에게 충분한 효용을 가져다 준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장기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세워도 완벽한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역설적으로 계획이 없더라도 비슷한 효용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공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변시 직전(약 한 달 전)만 아니라면 그저 잡히는 대로, 그때 그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시험대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Ⅲ. 로스쿨 3학년

#### 1. 첫째는 민사다

로스쿨 3학년 1년의 기간은 앞선 2년과는 매우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주는 스트레스가 상시 존재하고, 무엇보다 공부시간과 분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실무 과목을 꽤나 본격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아서 본시험 응시자격이 없었지만, 3학년 1학기 동안 민사법의 기초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민재실을 중심으로 민사법 공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3-1에 민사법을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었고, 변호사시험까지 상대적으로 형사법과 공법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은 여러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배점이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시험범위도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에 3학년 여름방학까지 민사법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까지의 호흡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민사법은 법리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에 다른 과목보다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사법은 한번 개념을 잘 잡아 놓으면 생각보다 기억에 오래 남는 편입니다. 저는 3학년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전체 공부시간의 10-15% 정도를 민사법에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빨리 민사법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초를 잘 세워 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학년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는 민사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관건은 선택형

저는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1)(2)를 모두 수강했기 때문에 민사와 형사 기록형은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3학년 2학기의 대부분을 선택형과 공법기록 대비에 투자했습니다.

기록형과 사례형이 평균적인 점수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변호사시험 점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택형 점수입니다. 기록과 사례가 표준점수화 되는 것에 비하여 선택형 점수는 원점수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선택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택형은 다양한 판례와 법리를 짧은 지문을 통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휘발성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선택형 공부를 시작할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저는 3학년 2학기부터 변호사시험까지 공법 기록형을 제외하고는 선택형 문제집을 통해 거의 모든 공부를 했습니다.

선택형 지문은 대부분 판례를 묻는 내용이고, 그 해설에는 판례의 주요 판시사항이 모두 정리돼 있습니다. 저는 선택형 문제집을 단권화 교재처럼 활용하여 해설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해설의 판례를 모두 읽고 암기하여 사례형 시험대비를 함께 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즈음이 되면 선택형 해설집에서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

다. 또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판례나 기본법리를 보는 것만으로 이를 어떻게 답안지에 녹여낼 것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선택형 문제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다른 유형의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례형 및 기록형 답안 작성요령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선택형 공부를 통해 다른 유형의 시험에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선택형 준비를 하다 보면 적절한 교재를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의 경우 누적된 기출문제가 워낙 많기에 모두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최근 기출문제만을 별도로 추리는 것도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저는 메가로이어스에서 출판한 선택형 집중 문제집을 이용했는데,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최근 3개년 모의고사 문제를 선별해 놓아서 공부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위 교재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3. 형사법 사례형 대비

저는 대부분의 민사법과 공법 사례형 시험을 선택형 문제집을 이용하여 준비했습니다. 일주일당 1, 2시간 정도 일부 문제를 골라서 답안 작성 연습을 했지만 그 이상 본격적인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의 경우 매주 2시간 이상 100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 비해 형사법 사례형은 한 문항당 점수 배점이 크고, 여럿의 죄책을 한번에 논하라는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 답

안을 작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시간 안에 답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목차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답안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과 쟁점이 워낙 다양해서 답을 쓰다 보면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면서 결론이 바뀌거나 법리의 구성이 달라지는 등 답안지 안에서 스스로 헤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형사법 사례형 문제를 통으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부족함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형사법 사례형만큼은 법리나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못지 않게, 그 내용을 잘 풀어내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자주 쓰면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IV. 나가는 글

변호사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 번 감을 잡히면 금방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묻고자 하는 법리나 판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시험 공부는 차근차근 실력이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어느 날 불현듯 합격에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